

순천시 달빛어린이병원 상반기 이용자 2만명 넘었다

휴일 평균 230명...이용률 순천 68%·광양 15%·여수 8%

전남 동부권 야간·공휴일 소아의료 공백 해소 역할 특출

평일 야간·휴일에 진료 가능한 '순천시 달빛어린이병원'의 환자가 상반기 중 2만명을 넘어섰으며, 휴일 평균 23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각종 환자가 평일 야간 또는 주말·공휴일에도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보건복지부 소아·야간·휴일 진료기관이다.

순천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 수는 총 2만4,666명이며, 1일 평균 52명·휴일·공휴일 평균 2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 이용률로는 순천이 68%로

가장 높고, 광양(15%)·여수(8%)·타지역(고흥·구례·보성 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순천시의 경우 만 18세 이하의 소아 인구 4만5,080명 중 37%가 달빛어린이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남지역 제1호로 지정돼 현대여성아동병원·미즈여성아동병원이 연합해 당번제로 운영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됐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의 비상 상황 속에서도 전남 동부권의 소아 건강지킴이 역할을 특출히

해내고 있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시에서는 소아과전문의 부족 등 열악한 의료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소아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국비를 포함한 시 자체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난해 총 2억8천만원의 운영 보조금을 병원 2곳에 지원했다.

두 병원에서도 지역 소아의료 공백해소를 위한 사망감소로 소아과전문의 1명, 간호사 2-3명, 행정직원 1명, 긴급검사를 위한 의료기사 1-2명 등이 팀을 이루어 야간 소아 전문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병원 인근 약국에서도 당번을 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의 높은 의료요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순천시는 내년부터 중증증 소아를 위한 '순천형 소아응급실'을 운영해 중증·중증증 환

아의 응급진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자녀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한 부부는 "늦은 저녁 아이가 열이 나 걱정이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어 당황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오게 돼 정말 다행이었다"며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공공의료에 앞서는 건강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시간은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수·목·금요일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토요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미즈여성아동병원은 월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이야포·두룩여 미군폭격사건 74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가 남면 안도 여수 이아포 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이야포·두룩여 미군폭격 74주년 희생자 추모제

어두운 역사 진상규명 다짐

이야포·두룩여 미군폭격사건 74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가 지난 2일 남면 안도 이아포 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여수시와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위령사업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추모제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록영상 상영, 박정욱 명창의 '서도소리'와 여수시립국악단의 '씻김굿' 공연에 이어 추모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여수시는 직접 방문하지 못한 시민과 유족을 위해 추모제 현장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이날 정기명 여수시장은 "어둡고 아픈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 널리 알리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야포·두룩여 미군폭격사건은 1950년 8월 3일, 전쟁 중 남면 안도리 인근 해상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피난선을 미군기가 기총사격해 승선자 약 250명 중 대다수가 사망했고, 같은 해 8월 9일 두룩여 해상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을 향해 사격을 가해 약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여수시는 2022년 피해자 유족의 증언을 기초로 이야포 추모비를 세우고, 민간에서 주도해 온 추모제를 민·관이 합동 개최해 추모 의미를 더했다.

또한 2023년에는 화대리 독정마을에 두룩여 추모비를 추가로 건립했다.

이와 함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 온 침몰선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 발굴용역도 진행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진월면 망덕포구에서 시작되는 '별 헤는 다리'.

광양 배알도서 황홀한 일출·야경 만끽하세요

광양시 8일 섬의 날 방문 추천

'일출·일몰·야경이 아름다운 광양 배알도에서 한여름 낭만을 만끽하세요'

광양시가 오는 8월 '제5회 섬의 날'을 맞아 '배알도 섬 정원'을 여름 휴가철 거기에 남을 만한 여행지로 꼽았다.

배알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들어서면서 대규모의 간척사업으로 광양지역 기존의 많은 섬들이 육지로 바뀌었지만, 유일하게 남은 섬이다. 550리 섬길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처럼 동그렇게 떠 있는 아담한 규모의 섬. '배알'은 지위가 높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본다는 뜻으로, 바로 앞 진월면 망덕산을 향해 조심스레 예를 갖추는 모습에서 섬의 이름이 유래했다고 알려졌다.

배알도는 '별 헤는 다리'와 '해맞이 다리', 두 개의 다리로 육지와 연결돼 있다.

진월면 망덕포구에서 시작되는 '별 헤는 다리'는 길이 275m로 국내 최초 곡선 램프가 도입된 해상보도교이다. 운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모티브로 이름 지어졌으며,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부공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태인동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뻗은 '해맞이 다리'는 길이 295m의 해상보도교로, 빛과 별의 도시 광양을 상징하는 태양을 모티브로 이름 지어졌다. 일출 명소로 꼽힌다. 이렇듯 다리와 함께 은은하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배알도는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생태와 인문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섬의 날에는 생태와 역사의 보고이자 일출·일몰·야경이 아름다운 배알도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고품질 극조생종 '진옥벼' 전남 첫 수확

고흥군이 해풍을 맞고 자란 햅쌀용 고품질 벼를 올해 전남에서 가장 먼저 수확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5일 고흥읍 등암리에서 공영민 군수와 지역농협장,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질 극조생종 벼 '진옥벼'를 수확했다.

이번 수확은 지난 4월16일 모내기를 한 후 116일 만에 이뤄졌으며, 오는 25일까지 모든 수확을 마칠 예정이다.

진옥벼는 수량성이 양호하고 식미가 좋다는 평을 받는 고품질 품종이다.

고흥군은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인해 농작물 수확이 타지역보다 10일에서 보름 정도 빠르다는 점을 활용해 극조생종 벼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올해 고흥군의 조생종 벼는 417ha에서 2502t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조생종 벼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군에서는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보성 녹차 군수 품질 보증

심의회 열어 26개 제품 선정

보성군이 지난 2일 북태(북재출)에서 '보성 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회'를 개최해 군수품질인증 제품을 선정했다.

이날 심의회는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품평 전문가인 10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차의 외형, 찻물의 색, 향, 맛, 우려낸 잎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오감(五感) 관능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보성군 차 제조공업체(26개소)에서 29개의 제품이 출품됐으며, 엄격한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 26개 제품이 군수 품질인증증을 받았다.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심의를 통과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받는다. 인증 상품은 군수 품질 인증 표지를 부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올해로 시행 16년 차를 맞고 있는 '군수품질인증제'는 보성에서 생산된 녹차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성녹차의 안전한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명품 녹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성 녹차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회 위원장인 서형민 부군수는 "명품 보성녹차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길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후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8월호

2024년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레마마을, 지역을 살리다

목포 여행

시간여행 남만바다 힐링섬길

한국학중앙연구원·광주일보 공동기획 '호남 서화가 열전' ⑤

구름가뭇물 흐르듯... 조선의 명필 서화가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 ⑥ 전 세계 희귀 조개, 고동 한 자리에 개관 4년째 관람객 12만 명, 신안 세계조개박물관

레마마을, 지역을 살리다

찾고 싶은 이유가 있다, 인기 레마마을의 매력

문화 콘텐츠로 활기 충전, 광주·전남의 레마마을들

문학관·도서관으로 문화매카 변신, 인제 만매마을

문화의 문화현장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를 가다 ② 또 하나의 주제전 아르세날레 전시관

호남의 누정 ④-광주 쾌고정수 지역과 후손 사랑 큰 그늘, 누정 님은 600살 왕버들나무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미국이 원하는 '미스터 프리저던트' 답은 영화에 있다

평인의 예술가와 친구들 ⑥ 온수리교회(성공회 성당) 스테인드글라스 만든 화가, 김용철

문화 화제

국창 예술촌 기리고 신인 발굴·육성하는 제32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김동호

영화는 내 삶의 일부, 함께 가는 반려

다큐 주인공으로 칸 레드카펫 밟은 '영화청년'

영화청년 김동호

영화는 내 삶의 일부, 함께 가는 반려

영화청년 김동호

영화는 내 삶의 일부, 함께 가는 반려